

휴비스, '에코에버 엘엠' 상업 생산 본격화

연간 1만6000t 규모 화학 재생 LMF 상업 생산 돌입... 원료 함유량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반 수준으로 절감

화학 섬유소재 전문기업 휴비스(대표이사 김석현, 코스피 079980)는 연간 1만6,000t 규모의 화학 재생 LMF(Low Melting Fiber) '에코에버 엘엠(Ecoever LM)'의 상업생산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에코에버 엘엠은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화학 재생 LMF 제품으로, 원유 사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활용 원료의 함유량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재활용이 반복될수록 품질이 떨어지는 물리적 재활용과 달리 PET 고분자를 화학적으로 분해해 저분자 상태로 만든 후 다시 재증합하므로 재활용을 반복해도 품질의 저하가 없어 자동차의 대시보드, 헤드라이너, 시트, 도어트림 등 내장재의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휴비스는 2010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산업원천 기술 개발사업에 참여해 화학적 재활용 기술 개발을 완료했으나 재활용 소재에 대한 인식이 낮고 생산 비용이 높아 상업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재활용 소재의 관심이 높아지고 화학적 재활용의 기술력까지 높아져 에코에버 엘엠의 상업 생산을 본격화하게 되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저감에 큰 기여를 하게 됐다.

특히, 친환경차 주력 시장인 유럽은 신차 생산 시 재활용 소재 비율과 폐차의 재활용률에 관한 '폐차처리지침(ELV, End of Life Vehicle Regulation)'을 더욱 확대해 2031년부터 개정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법안에 따르면 차량에 쓰이는 플라스틱(1대당 약 300kg) 중 25%를 재활용 소재로 사용해야 하며, 이 중 30%는 폐차로부터

회수해 재활용한 소재를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현대차, 기아를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재활용 소재에 대한 수요는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휴비스는 친환경·차별화 소재 포트폴리오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실제 2023년 휴비스의 스페셜티 제품군은 전년 대비 50%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석현 휴비스 대표이사는 "이번 에코에버 엘엠의 상업 생산을 시작으로 국내 자원 선순환은 물론 화학적 재활용 소재의 국산화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산업용, 인테리어용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화학적 재활용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높은 만큼 친환경·차별화 제품에 대한 포트폴리오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휴비스는 2000년 11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삼양사(현 삼양홀딩스)의 화섬사업을 분리해 새로운 통합법인 '휴비스'로 출범했으며, 전주에서 1969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역민과 함께 하는 장수 명문 기업이다.

휴비스는 세계 섬유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폴리에스터 사업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국내 최대의 생산능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머무르지 않고 자동차용 소재, 산업용 소재, 슈퍼섬유, 리사이클·생분해 소재 등 친환경 고기능 차별화 소재산업으로 그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인류친화적인 친환경 사업 확장을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LX 어명소 사장(사진 왼쪽)과 전북개발공사 최정호 사장은 20일 LX 본사(전주)에서 '토지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국토정보 공유 및 지적분야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토지개발사업 전반 협력·협업 강화

LX-전북개발공사, 지역사회발전 등 위한 협약 체결

LX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 어명소)와 전북개발공사(JBDC·사장 최정호)가 토지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국토정보 공유 및 지적분야 기술협력을 위한 협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LX와 전북개발공사는 20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LX 본사에서 '지역사회발전 및 국토정보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LX와 전북개발공사는 △지적측량, 토지보상, 재산관리 등 지적 및 공간정보체계 구축 분야 협력 강화 △도시재생 등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정

보화 사업 협력 등을 추진한다.

또한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연구·교육 및 기술 교류 등을 위한 협력도 진행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과 토지개발사업 공사 기간 단축 등 도민 주거복지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LX 어명소 사장은 "전북개발공사의 축적된 도시개발 기술과 LX의 지적·공간정보 기술을 융합한다면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며 "양 기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환경청, 새만금호 수질오염사고 대비 합동 방제훈련 실시

기름 유출 등 발생시 관계 기관의 협조체계·사고대응 역량 점검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20일 오후 3시에 새만금호 육구승수호에서 수질오염사고 대비 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제훈련은 2024년도 정부 을 지연습 훈련의 일환으로 전북지방환경청(주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군산경찰서, 군산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환경공단, 남광토건(주), 엔아이티(주)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시에 군산공항으로 이동 중이던 유류 운반차량이 전복되어 유류 약 2,000리터가 수면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수심이 낮은 훈련지역의 특성상 중대형 방제선 등 중장비 진입이

곤란한 상황에서 고무보트 등 소형 선박을 이용해 신속·정확히 대처하는 동시에 관계기관간 협력 역량을 점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훈련과정은 사고발생에서 수습까지의 과정을 상황보고 및 전파, 현장 초동조치, 현장출동 및 사고대응, 후속 조치 등 크게 4단계로 구분 진행했다.

먼저 △상황보고 및 전파 단계에서는 사고발생 직후 환경부 등 관계 기관으로 신속히 현장상황을 보고·전파하고, △현장 초동조치 단계에서는 수계유입 차단 방제독 설치, 1차 오일펜스 설치, 사고차 응급구조 및 화재진압을 진행했다.

아울러 △현장출동 및 사고대응 단계에서는 환경청 등 관계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2차 오일펜스 설치 및



새만금호 육구승수호에서 실시된 수질오염사고 대비 합동 방제훈련.

유류흡착 제거 등을 실시했다.

마지막 △후속조치 단계에서는 오염 확산여부 조사 및 시료채취, 방제 완료 상황보고를 끝으로 훈련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오염사고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얼마나 신속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합동 방제훈련을 통해 관계기관의 사고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은행, 'JB쪽 전북 에듀페이와 함께해요'

이벤트 추첨으로 아이패드 경품 지급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전북특별자치도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JB쪽 전북 에듀페이와 함께해요' 이벤트 당첨자에 대한 경품을 전달했다.

이번 이벤트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육비와 더불어 금융생활에 첫발을 내디딘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진행했

으며, 전북은행 입출금 통장을 전북 에듀페이 체크카드 결제 계좌로 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와 애플펜슬 2명, 에어팟프로 4명 외에 요기요 및 GS25 모바일쿠폰을 1,115명에게 지급했다. 경품을 수령한 오송초등학교 신유

/이만호 기자

현(5학년) 학생은 "꼭 갖고 싶은 경품을 받아서 너무 좋다"며 "전북은행 사랑해요!"라고 감격찬 소감을 밝혔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미래 잠재 고객인 청소년층이 금융생활에 한층 더 가까워 질 수 있도록 맞춤형 이벤트와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농협, 2024년 을지연습 실시

비상대비태세 확립 위해

전북농협은 지난 19일 오전 9시 전 시상황조치훈련을 시작으로 2024 을지연습에 돌입하였다고 밝혔다.

전북농협은 을지연습 기간 동안 비상사태 시에도 전북농협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시 전환절차, 위기 상황을 가정한 사전메세지 훈련, 소방훈련, 전시 식량 체험을 실시할 예정으로 국민 생활 안정과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목표로 연습에 임한다고 전했다.

전북농협 김영일 본부장은 "국가 안



보와 우리 가정의 안전한 삶을 보호하기 위해 연습 간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등 농협 소관분야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습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